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심리적 가정환경이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and Parental Verbal Control Type on a Child's Self-Resilience*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 이상미
교수 이희선

Department of Child Welfare, Kyungwon National University

Master Student : Sangmi Lee

Professor : Heesun Lee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요약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certain if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and parental verbal control type had gender-specific affects on a child's self-resilience.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information on 356 children who attend elementary school.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Positive correlations were established among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and parental verbal control type;(2)Fathers' verbal control type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to a child's gender;(3) Father's verbal control type affected self-resilience of boys, while mother's verbal control type affected self-resilience of girls.

주제어(Key Words) : 자아탄력성(self-resilience), 심리적 가정환경(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부모 언어 통제유형(parental verbal control type)

Corresponding Author : Heesun Lee, Department of Child Welfare, Kyungwon National University, San 65 Bokjung-Dong, Sujung-Gu, Sunnam-Shi, KyungKi-Do, 461-701, Korea Tel: +82-31-750-5114 Fax: +82-31-753-8828 E-mail: hslee@kyungwon. ac. kr

* 이 논문은 2008년도 경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임

I. 서론

현대 사회의 아동은 다방면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양대가 전국 94개 초등학교 학생 7,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아동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생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5.8%가 정서·행동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간보사, 2006년 8월 3일자). 이와 같은 문제는 특히 현대의 성취지향적인 사회 분위기와 이를 북돋우는 가정 분위기에 의해 더욱 심각해지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정서·행동적 문제를 보이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동은 다른 아동에 비해 비슷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비교적 잘 적응해서 행복감을 증진시키기도 한다. 아동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적응능력의 차이는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이라는 개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자아탄력성이란 일시적이고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그 이전의 자아 통제 수준으로 되돌아가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Block, 1971).

자아탄력적인 아동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느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으로 유능하고, 효과적인 지능과 융통성을 지니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이고 특정 맥락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지각과 인지, 행동전략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묘사된다(Block & Kremen, 1996). 따라서 점차 복잡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아동의 적응력을 증진시키고 긍정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적인 특성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이러한 특성의 선행변인을 밝혀내어 실제에 접목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기여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아동의 내적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내적 특성은 높은 자아존중감, 내적 통제력, 자율성, 인지적 기술, 활동성 수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등을 들 수 있으며(Garmezy, 1993), 환경적 특성은 부모의 양육 일관성,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가정의 분위기, 부모와 아동의 친밀성, 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등의 가정적인 요인과 학교나 친구 관계에서의 지지, 또래 관계에서의 인기, 아동이 동일시했던 모델이 있음 등을 들 수 있다(Cicchetti & Garmezy, 1993). 이 중에서도 환경적 특성은 노력에 의해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적 특성의 변화는 아동의 내적 특성까지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환경적 변인 가운데 가족 상호간의 태도, 분

위기 등의 심리적 가정환경(정원식, 1989)은 아동의 성격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생활에서 강력한 사회적 힘으로 인지된다는 점에서(박경한, 2005; 이곡정, 2005) 더욱 중요하다.

Cicchetti와 Garmezy(1993)는 긍정적인 가정의 특성, 즉 원활한 의사소통,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이해 수준 등이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하는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여 자아탄력성과 긍정적인 가정 특성의 상관을 지지하였다. 또한 자아탄력성에 기초가 되는 개인적 자원이나 대처전략을 가진 아동들은 가족 간의 건전한 의사소통을 제공하는 가정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권지은, 2003), 가족의 응집성(권해수, 2003; 남영옥, 김재한, 2003),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와 가족의 지지(장성숙, 2001),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성취적 양육태도(정미현, 2003) 등이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상관이 있었으며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효율적인 자녀 양육 부모의 일관적인 양육 방식,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와 더불어 부모와 아동의 친밀성이 아동의 자아탄력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Garmezy, 1993).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발달에 있어서 심리적 가정환경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에는 언어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언어를 통해서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고 평가하게 되므로(김진숙, 1995), 부모의 양육행동을 반영하는 언어통제 유형은 아동의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Gumperz (1973)는 언어사회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사회적 통제의 양식으로 명령적 통제(imperative modes of control)와 대화에 근거한 통제(control based upon appeals)로 구분했으며, 대화에 근거한 통제를 다시 지위적 통제(positional modes of control)와 인성적 통제(personal modes of control)로 나누었다. 이 때 각각의 언어 통제유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모의 언어표현에서 아동에게 역할재량권(role discretion)을 얼마나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명령적 통제는 아동에게 역할재량권(role discretion)이 거의 주어지지 않으며 언어표현으로는 제한된 어법이 주로 사용된다. 즉, 명령적 통제는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체벌이나 위협, 언어적 처벌 등에 근거한 통제유형으로, 아동에게는 부모의 지시에 대한 복종과 수용 만 허용된다. 지위적 통제는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아동에게 부여되는 역할재량권은 제한적이며,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주된 근거는 사회의 보편적 또는 특수한 지위에 내재한 규범과 규칙이 된다. 인성적 통제는 아동의 행동을 통제

할 때 아동이 처한 사회적, 형식적 지위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부모는 아동에게 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아동이 지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새로운 설명을 해준다(오유리, 2008).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관련된 국내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양육행동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다양한 아동의 발달적 결과와 관련지어 연구되어 왔다(오유리, 2008; 이경아, 2008; 이경희, 1993; 이애리나, 1990; 정상하, 2008; 차윤정, 2002). 따라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은 아동의 자아통제력의 발달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선행변인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이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을 인식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높게 나타났으며(김지은, 200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경희, 정옥분, 1994b)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관련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임규란, 2001), 부모는 아동에게 남아인 경우 인성지향적 통제를, 여아인 경우 지위지향적 통제를 주로 사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박문옥, 2007).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의 자아탄력성에는 각각 다르게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며(임정숙, 2006),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라 남녀 아동이 지각하는 인지양식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이미경, 1984). 또한 아동의 성격 특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은 남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인성적 통제, 여아는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로 나타났다(이진영, 2003), 아동의 자기통제력에 있어서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명령적 언어통제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아버지의 인성적 언어통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여아의 자기통제력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정지영, 2005)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를 보면 남아의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낮았으나 여아의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행동으로부터 대체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가해경험을 주로 하는 것이 보고된 바도 있다(한세리, 2007). 따라서 아동의 가정내적인 환경으로서의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심리적 가정환경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각각 어떻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위변인별로 연구하는 것은 남녀 아동의 자아탄력성 형성을 돕고자 하는 본 연구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으로

여겨진다.

한편,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의 아동들은 많은 시간을 또래와 함께 지내며 성에 적합한 행동은 서로 보상하고 성에 부적합한 행동은 서로 벌하며 성역할 습득을 위한 놀이를 서로 가르치고 자극을 받는다. 이러한 또래들의 보상과 벌은 아동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래 집단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래로부터 거부된 아동은 성역할에 적합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여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정옥분, 1998). 인간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때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데 특히 또래들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인정이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래 집단에 의해 인정받고 수용되지 못하는 아동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이를 완화해주는 적절한 사회 정서적 지지를 찾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및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아동의 또래 집단의 성별에 따라 상대적 영향력을 측정하여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심리적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가정환경이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태도와 분위기를 의미하며, 성취-비성취, 자율-타율, 개방-폐쇄, 친애-거부로 구분된다.

요약하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인 환경적 요인 중에서 심리적 가정환경과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아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유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아동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는 저학년 때와는 달리 부모나 교사, 사회에서 더 많은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며 사회적 기대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이 생긴다는 점에서(김성옥, 2003) 막대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에 관한 기초연구와 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재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취업의 증가로 인해 자녀양육이 더 이상 여성 혼자만의 몫이 아닌 부모의 공동책임으로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져, 자녀발달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태희, 1998).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의 발달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아버지만을 연구하거나 두 부모를 모두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김예빈, 200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을 대

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 즉 아버지·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이들의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사회 정서적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하며 이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및 자아탄력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심리적 가정환경,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및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심리적 가정환경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남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S시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11개 학급의 아동 356명(남: 190명, 여: 16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은 40 ~ 44세가 각각 54.5%, 57.0%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각각 57.0%, 65.2%로 가장 많았다. 가족구조는 핵가족이 주를 이루었으며(88.8%) 어머니의 취업 상황은 미취업 56.7%, 시간제 및 전일취업 43.3%의 순이었다.

2. 측정도구

1)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lock과 Kremen(1996)의 연구를 기초로 박은희(1996)가 개발한 척도를 신지연(2004), 김미향(2006)이 재구성한 것을 아동용 질문지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6개 문항으로 대인관계(8문항), 활력성(8문항), 감정통제(4문항), 호기심(8문항), 낙관성(8문항)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Likert식 5점 척도이며, 각 문항별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척도별 범위(최소값, 최대값)는 대인관계(1.50, 4.88), 활력성(2.00, 4.88), 감정통제(1.00, 5.00), 호

기심(2.00, 5.00), 낙관성(2.13, 4.88)과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하위척도별로 .54~.68이었으며 전체 자아탄력성 척도에 대해서는 .84이었다.

2) 심리적 가정환경 척도

심리적 가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원식(1989)이 개발한 심리적 가정환경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가 .50 이하로 낮은 12개 문항을 제외하여 성취-비성취(6문항), 자율-타율(8문항), 개방-폐쇄(12문항), 친애-거부(2문항)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총 2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반응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심리적 가정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하위척도별 범위(최소값, 최대값)는 성취-비성취(1.17, 4.50), 자율-타율(1.50, 5.00), 개방-폐쇄(1.92, 4.58), 친애-거부(1.00, 5.00)와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하위척도별로 .51~.71이고 전체 심리적 가정환경 척도에 대해서는 .70이었다.

3) 부모 언어통제유형 척도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경희(1993)가 개발한 척도를 오유리(2008)가 재구성한 것을 아동에 맞게 수정하였고, 또한 기존 연구에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대해서만 주로 연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형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52개 문항으로, 인성적 통제, 지위적 통제, 명령적 통제로 구성된 Likert식 3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적인 언어통제유형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각 하위척도별 범위(최소값, 최대값)는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1.00, 2.96),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1.04, 2.96)과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26문항)이 .9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26문항)이 .88이었으며, 전체 부모언어통제유형의 값은 .91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 요인과의 상관계수와 평균치와의 차

이검증을 위해 독립표본의 t검증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라 지각하는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탄력성의 하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선형 회귀분석과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VIF 값을 살펴본 결과 VIF 10 이하(1.19 ~ 2.28), TOL 0.1 이상(.44 ~ .84)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기본가정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었다.

Ⅲ. 연구결과

1. 남녀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본 연구대상 아동들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및 자아탄력성의 전반적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산출하였다. 각 변인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심리적 가정환경은 가능한 점수범위 1-5점 중 3.45,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가능한 점수범위 1-3점 중 2.10, 자아탄력성은 가능한 점수범위 1-5점 중 3.46이었다. 심리적 가정환경,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및 남녀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1) 남아에 대한 전체 변인들 간의 관계

<표 1>에 의하면 남아가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가정환경의 하위요인 중에서 성취-비성취 요인과 친애-거부 요인은 어머니 언어통제 유형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는데 성취-비성취 요인은 부적상관, 친애-거부 요인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가정환경의 나머지 하위요인인 자율-타율과 개방-폐쇄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심리적 가정환경을 성취적으로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을 명령적, 지위적으로 지각하였으며, 심리적 가정환경을 친애적으로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을 인성적으로 지각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아가 심리적 가정환경을 자율적이고 개방적으로 지각할수록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을 인성적으로 지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아가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남아의 자아탄력성간의 관계 역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는데, 심리적 가정환경의 하위요인 중에서 성취-비성취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과 남아의 자아탄력성은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

으로는 심리적 가정환경의 하위요인인 자율-타율, 친애-거부, 개방-폐쇄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 낙천성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남아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감정통제는 심리적 가정환경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의 지각에 의한 심리적 가정환경이 자율적, 친애적, 개방적일수록 남아의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 낙천성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남아가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남아의 자아탄력성간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은 남아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에서 활력성, 감정통제, 낙관성과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은 남아의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을 인성적으로 지각할수록 남아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활력성, 감정통제, 낙관성이 높았음을 의미하며, 남아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을 인성적으로 지각할수록 남아의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천성을 포함한 전체적인 자아탄력성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남아가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대부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가정환경이 긍정적일수록 남아의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긍정적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2) 여아에 대한 전체 변인들 간의 관계

<표 1>에 의하면 여아가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리적 가정환경의 하위요인 중에서 성취-비성취를 제외한 자율-타율, 친애-거부, 개방-폐쇄가 어머니와 아버지 언어통제유형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심리적 가정환경을 자율적, 친애적, 개방적으로 지각할수록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을 인성적으로 지각하였음을 의미한다.

여아가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여아의 자아탄력성 역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심리적 가정환경의 하위요인인 성취-비성취는 여아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며 심리적 가정환경의 하위요인인 자율-타율은 여아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낙관성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가정환경의 하위요인인 친애-거부, 개방-폐쇄는 여아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 활력성, 낙관성과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

〈표 1〉 남녀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자아탄력성 및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356)

| 여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1. 성취-비성취 | - | | | | | | | | | | |
| 2. 자율-타율 | -.41*** | - | | | | | | | | | |
| 3. 친애-거부 | -.04 | .26*** | - | | | | | | | | |
| 4. 개방-폐쇄 | -.40*** | .69*** | .38*** | - | | | | | | | |
| 5. 아버지언어통제유형 | .05 | .30*** | .14 | .19** | - | | | | | | |
| 6. 어머니언어통제유형 | -.21** | .29*** | .29*** | .33*** | .37*** | - | | | | | |
| 7. 대인관계 | -.12 | .10 | .15* | .36*** | .06 | .18* | - | | | | |
| 8. 활력성 | .04 | .24** | .45*** | .40*** | .21** | .21** | .47*** | - | | | |
| 9. 감정통제 | .06 | .09 | .14 | .13 | .29*** | .29*** | .54*** | .47*** | - | | |
| 10. 호기심 | .14 | .17* | .26*** | .31*** | .02 | .22** | .36*** | .55*** | .34*** | - | |
| 11. 낙관성 | -.06 | .32*** | .32*** | .42*** | .22** | .28*** | .41*** | .62*** | .37*** | .52*** | - |

* $p < .05$. ** $p < .01$. *** $p < .001$.

아가 심리적 가정환경을 성취적으로 지각할수록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이 높았음을 의미하며, 여아가 심리적 가정환경을 자율적으로 지각할수록 낙관성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여아가 지각한 심리적 환경이 친애적이고 개방적일수록 대인관계, 활력성, 낙관성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여아가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여아의 자아탄력성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은 여아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활력성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은 여아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에서 호기심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여아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을 인성적으로 지각할수록 여아의 활력성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을 인성적으로 지각할수록 여아의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낙관성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여아가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여아가 심리적 가정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여아의 자아탄력성이 높았으며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여아의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가정환경,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및 자아탄력성의 차이

아동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가정환경,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및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성별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아버지의 언어통제만 유의한 성차가 보여 여아가 남아보다 아버지의 언어통제를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하위요인 중에서 대인관계, 호기심에서 유의

한 성차가 나타나 대인관계는 여아가 높게 나타났으며 호기심 수준은 남아가 더 높게 나타났다.

3. 심리적 가정환경,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남녀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남녀 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

〈표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가정환경,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및 자아탄력성의 차이

(N = 356)

| | 성별 | M | SD | t | |
|-------------|-----------|------|------|------|----------|
| 심리적 가정환경 | 성취-비성취 | 남 | 3.03 | .58 | .87 |
| | | 여 | 2.97 | .59 | |
| | 자율-타율 | 남 | 3.42 | .55 | -.85 |
| | | 여 | 3.47 | .62 | |
| | 개방-폐쇄 | 남 | 3.43 | .54 | -.12 |
| | | 여 | 3.44 | .54 | |
| 친애-거부 | 남 | 3.50 | .89 | -.59 | |
| | 여 | 3.55 | .80 | | |
|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 | 아버지의 언어통제 | 남 | 2.04 | .39 | -3.32** |
| | | 여 | 2.17 | .32 | |
| | 어머니의 언어통제 | 남 | 2.12 | .37 | 1.00 |
| | | 여 | 2.08 | .37 | |
| | 대인관계 | 남 | 3.37 | .46 | -4.96*** |
| | | 여 | 3.61 | .45 | |
| 자아탄력성 | 활력성 | 남 | 3.56 | .58 | -1.31 |
| | | 여 | 3.64 | .57 | |
| | 감정통제 | 남 | 3.23 | .67 | -.59 |
| | | 여 | 3.27 | .61 | |
| | 호기심 | 남 | 3.49 | .53 | 2.09* |
| | | 여 | 3.37 | .56 | |
| 낙관성 | 남 | 3.57 | .56 | 1.17 | |
| | 여 | 3.50 | .51 | | |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심리적 가정환경,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남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 = 190)

| 종속변인 | | | 남아의 자아탄력성 | | | | | R ² | F |
|--------------|---------------|---|-----------|--------|--------|-------|-------|----------------|----------|
| | | | 대인관계 | 활력성 | 감정통제 | 호기심 | 낙관성 | | |
| 부모언어 통제유형 | 아버지언어 통제유형 | B | -.15 | .10 | .18 | -.15 | .14 | .15*** | 6.24*** |
| | | β | -.18* | .15 | .31*** | -.21* | .19* | | |
| | 어머니언어 통제유형 | B | -.02 | -.03 | .12 | .06 | .13 | .12*** | 5.09*** |
| | | β | -.03 | -.05 | .23** | .08 | .19* | | |
| 심리적 가정환경 | 성취-비성취 | B | -.36 | .07 | .13 | .25 | -.19 | .08** | 3.18** |
| | | β | -.26** | .07 | .15 | .23* | -.18 | | |
| | 자율-타율 | B | -.06 | .11 | -.03 | -.01 | .32 | .11** | 4.52** |
| | | β | -.05 | .10 | -.04 | -.01 | .30** | | |
| | 개방-폐쇄 | B | .25 | .19 | -.16 | .05 | .25 | .25*** | 11.85*** |
| | | β | .21** | .21* | -.19* | .05 | .25** | | |
| | 친애-거부 | B | -.11 | .70 | -.11 | .02 | .15 | .22*** | 9.9*** |
| | | β | -.06 | .45*** | -.08 | .01 | .10 | | |

*p < .05. **p < .01. ***p < .001.

〈표 4〉 심리적 가정환경,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여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 = 166)

| 종속변인 | | | 여아의 자아탄력성 | | | | | R ² | F |
|--------------|---------------|---|-----------|-------|--------|--------|-------|----------------|----------|
| | | | 대인관계 | 활력성 | 감정통제 | 호기심 | 낙관성 | | |
| 부모언어 통제유형 | 아버지언어 통제유형 | B | .00 | .12 | .02 | -.01 | -.03 | .04 | 1.41 |
| | | β | .01 | .22 | .03 | -.01 | -.04 | | |
| | 어머니언어 통제유형 | B | .17 | .12 | .19 | -.11 | -.07 | .06*** | 6.23*** |
| | | β | .20* | .18 | .30*** | -.17 | -.09 | | |
| 심리적 가정환경 | 성취-비성취 | B | -.02 | -.06 | .07 | .55 | -.21 | .25*** | 10.41*** |
| | | β | -.02 | -.06 | .07 | .53*** | -.18* | | |
| | 자율-타율 | B | -.02 | .22 | -.19 | -.19 | .26 | .11** | 3.99** |
| | | β | -.01 | .20 | -.19* | -.17 | .22* | | |
| | 개방-폐쇄 | B | .23 | .16 | -.05 | -.26 | .15 | .12** | 4.23** |
| | | β | .19 | .17 | -.06 | -.27** | .14 | | |
| | 친애-거부 | B | .06 | .56 | .05 | -.30 | .07 | .13*** | 5.0*** |
| | | β | .03 | .40** | .04 | -.21* | .04 | | |

*p < .05. **p < .01. ***p < .001.

보기 위하여 심리적 가정환경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을 독립변인으로,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1) 심리적 가정환경,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남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남아가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남아의 자아통제력의 하위요인 각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우선 남아의 자아통제력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심리적 가정환경의 성취-비성취요인(β = -.26, p < .01)과 개방-폐쇄요인(β = .21, p < .01),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β = -.18, p < .05)의 순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활력성에는 심리적 가정환경의 친애-거부 요인(β = .45, p < .001), 개방-폐쇄 요인(β = .21, p < .05)의 순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감정통제는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β = .31, p < .00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β = .23, p < .01), 심리적 가정환경의 개방-폐쇄 요인(β = -.19, p < .05)의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호기심에는 심리적 가정환경의 성취-비성취 요인(β = .23, p < .05),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β = -.21, p < .05)의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낙관성에는 심리적 가정환경의 자율-타율 요인(β = .30, p < .01), 개방폐쇄 요인(β = .25, p < .01)이 순서적으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같은 크기의 영향력으로(β = .19, p < .05) 세 번째로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심리적 가정환경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남아의 자아통제력을 설명하는 정도는 심리적 가정환경의 성취-비성취 요인이 .08%, 자율-타율 요인이 .11%, 개방-폐쇄 요인이 .25%, 친애-거부 요인이 .22%이었으며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15%,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12%이었다.

2) 심리적 가정환경,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여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여아가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여아의 자아통제력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아의 자아탄력성의 대인관계에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beta = .20, p < .05$)만이, 활력성에는 심리적 가정환경의 친애-거부 요인($\beta = .40, p < .01$)만이 영향력이 나타났다. 또한 감정통제에는 어머니 언어통제유형($\beta = .30, p < .001$)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으며 심리적 가정환경의 자율-타율 요인($\beta = -.19, p < .05$) 다음으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호기심에는 심리적 가정환경의 성취-비성취 요인($\beta = .53, p < .001$), 개방-폐쇄 요인($\beta = -.27, p < .01$), 친애-거부 요인($\beta = -.21, p < .05$)의 순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낙관성에는 심리적 가정환경의 자율-타율 요인($\beta = .22, p < .05$), 성취-비성취 요인($\beta = -.18, p < .05$)이 순서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냈다. 심리적 가정환경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여아의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심리적 가정환경의 성취-비성취 요인이 .25%, 자율-타율 요인이 .11%, 개방-폐쇄 요인이 .12%, 친애-거부 요인이 .13%이었으며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여아의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16%이었다.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가정환경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아동의 자아탄력성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각 변인의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와 그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아동이 심리적 가정환경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을 인성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심리적 가정환경을 지닌 가정의 부모는 긍정적인 언어통제유형을 활용하여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발달을 도모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이은미, 2001; 정미현, 2003)와 일치하며 가족이 건전한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지고 대인관계가 긍정적이 된다는 연구 결과(임정숙, 2006)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에 의해 지각된 자율적,

개방적, 친애적 분위기는 부모의 인성적인 언어적 통제유형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심리적 가정환경의 자율적, 친애적, 개방적 분위기가 부모의 긍정적인 언어통제 유형과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심리적 가정환경의 경우, 남이는 자율적, 친애적, 개방적인 심리적 가정환경이 자아탄력성의 대부분의 하위요인과 상관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아의 경우 성취적, 자율적, 친애적, 개방적인 심리적 가정환경이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들과 상관이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아와 비교했을 때 여아의 자아탄력성은 자율, 친애, 개방적인 심리적 가정환경과 함께 성취 지향적인 심리적 가정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여아보다는 남아가 성취지향적인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에는 여아 역시 동등하게 성취지향적인 환경에 적응해야하므로 이와 같은 변인의 영향력이 여아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을 수 있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의 경우,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인성적일수록 남이는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활력성, 감정통제, 낙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아는 활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인성적일수록 남이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천성을 포함한 전체적인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아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낙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아동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보다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여아의 경우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인성적 언어통제유형을 사용 할수록 여아의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 요인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김지은, 2003; 박문옥, 2007)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인성적일수록 자아존중감, 적응, 내의 통제성이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고영자, 2000; 이진영, 2003)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해 아동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여아는 같은 성인 어머니에 의해 받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은 아버지의 언어통제에만 유의한 성차가 보여 여아가 남아보다 아버지의 언어통제를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하위요인 중에서 대인관계, 호기심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 대인관계는 여아가 높게 나타났으며 호기심 수준은 남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양식을 취하는 것은 문화

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현상이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양육행동을 보였는가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남이는 신체적으로 벌을 가하는 것과 같은 권력적 통제유형으로 통제하는 반면 여아는 언어를 사용한 설득적 통제유형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여아의 경우 언어적 통제유형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경우, 자아탄력성의 대인관계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임정숙, 2006)와는 일치하지만,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박은희, 1996; 강희경, 2005)와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미하게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밝힌 연구결과들(이은미, 박인전, 2002; 임정숙, 2006)과는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남아의 자아탄력성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보다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에 의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여아의 자아탄력성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보다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의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남이는 여아와 비교했을 때 보다 심리적 가정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특히 심리적 가정환경의 개방-폐쇄 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여아는 성취-비성취 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녀는 같은 성의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이는 아버지에 의해, 여아는 어머니에 의해 받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여아 역시 성취지향적인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므로 여아에게 이와 같은 성취지향적인 가정 분위기의 영향력이 컸을 가능성이 있으며, 남아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남이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행동적인 면에서 여아보다 공격적이고 부산하고 다루기 힘들며 부모의 지도나 훈육에 더 반항적인 경향이 있어서(이미경, 1984) 아동에게 보다 많은 통제를 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가정에서 얼마나 개방적으로 대하는지가 남아에게는 큰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면 아동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심리적 가정환경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이러한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환경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 인구조적 변인 중에서 성별만을 변인으로 선정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형제-자매 등의 출생 순위

와 기타 변인들도 포함시켜 전체적인 인과관계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별에 따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되지 않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편부모 및 조손가정 등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을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후속연구에서는 현장에서의 도움이 더욱 절실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자를 도시 중산층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연구방법을 아동의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의한 주관적 보고로만 한정했으므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계층과 연구 방법의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심리적 가정환경, 남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만을 살펴보았지만, 아동 후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또래 관계 및 학교 현장 관련 적용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남녀 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 및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알아보고 남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과 그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성별에 따른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탄력성 형성과 관련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 남녀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동상담지도 기법의 개발 및 효율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희경(2005). 가족의 건강성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93-102.
- 고영자(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은정(1997).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지은(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해수(2003).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귀인양식 및 대처 전략과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청소년 상담연구**, 11(1),

22-31.

- 김미향(2006). 자아탄력성 증진 훈련이 중학생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선(2006).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이점발견(Benefit-Finding)과의 관계 연구: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옥(2003).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훈련이 초등 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여량(2003). 아동과 어머니가 지각한 언어통제유형의 일치 여부와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기개념.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예빈(2004). 부모의 사회화 양육신념과 남·여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은(2003).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유능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숙(1995). 부모의 언어 통제 유형과 아동의 자아지각.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영옥, 김재한(2003). 알코올중독자를 부모로 둔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적응유연성과의 관계. **한국청소년학회지**, 10(1), 199-221.
- 박경한(2005).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이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박문옥(2007).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신, 김의철(2003). 한국 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와 학업성취. **교육심리연구**, 17(1), 37-54.
- 박은희(1996).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지연(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어은주,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5.
- 오우리(2008). 연령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수명(2006). **마우스로 잡는 SPSS 12.0 for Windows**. 서울: 인간과 복지.
- 유영주(1994).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원의 역할. **한국아동학회 제16차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7-42.
- 윤현희, 홍창희, 이진환(2001). 부모 보고형 자아탄력성 척도의 개발. **심리과학**, 10, 33-53.
- 이경아(2008).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희(199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희, 정옥분(1994a).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15(2), 109-123.
- 이경희, 정옥분(1994b).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2(5), 69-96.
- 이극정(2004). 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개념 및 내적 동기와의 관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경(1984). 부모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인지양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소영(2007). 아동의 사회적 지지·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애리나(1990).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문제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운경(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기대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미, 박인전(200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7(1), 3-24.
- 이진영(200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일간보사 의학신문(2006. 8. 3). 초등생 4명중 1명꼴 정서·행동 불안 “우리 아이도 혹시?”. 출처 http://www.bosa.co.kr/news_board/view.asp?news_pk=85203 에서 2008년 6월 9일 인출함.
- 임규란(2001). 유아에 대한 부와 모의 언어통제유형 비교.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임정숙(2006).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와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성숙(2001). 현실역동 집단상담. **한국심리학회지**, 13(2), 1-18.
- 정동화(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탄력성. **교육문제연구**, 9, 205-223.
- 정미자(2007).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가정환경, 신체만족도 및 공격성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현(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 간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상하(2008).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정옥분(2002). **아동발달의 이해**(pp. 298-302). 서울: 학지사.
- 정원식(1989). **가정환경 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
- 정지영(2005). 유아의 기질 및 부모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통제력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태희(1998).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논문집(기전여자대학)**, 18, 55-76.
- 정현숙, 유계숙(2001). **가족관계**(pp. 179-185). 서울: 신정출판사.
- 조은희(2007). 대안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 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진은영(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정상경험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차운정(2002). 모의 양육태도 및 언어통제유형과 자녀의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세리(2007). 남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생의 공격성 및 학교폭력 경험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태연(2008).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의 차이.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ndura, A.(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NY: Holt
- Baumrind, D.(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lock, J.(1971). **Lives through time**. Berkeley, CA: Bancroft Book.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Cicchetti, D., & Garmezy, N.(1993). Prospects and promises in the study of resili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4).
- Garmezy, N.(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4).
- Gumperz, J. J.(1973).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London: Holt, Rinehart & Winston.
- Ruddy, M. G., & Bomestine, M. H.(1982). Cognitive correlates of infant attention and maternal stimulation over the first year life. *Child Development*, 53, 183-188.

접 수 일 : 2008년 10월 8일

심사시작일 : 2008년 10월 9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1월 17일